

Issue Comment

2018. 5. 10

KT&G 033780

1Q18 Review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실적 발표

매출액 9.4% 감소. 부문별 매출액 KTNG 21% 감소, 홍삼 15%증가
매출액 감소 영향 및 판관비 증가효과로 연결 영업이익 21.2% 감소
순이익은 외환관련 이익 증가로 6.1% 증가

담배 부문

담배 매출액 21.2% 감소 국내담배 권력 총 수요 감소 영향으로 5.0% 감소
수출담배는 44% 감소 주력 지역 선적 지연 때문. 부동산은 대구 분양 종료
효과로 매출액 감소

국내담배는 수량 10.7% 감소에도 매출액은 4.9% 감소로 방어, ASP 믹스
개선 효과 및 릴 기계판매가 국내담배 매출로 인식된 효과. 1분기 기계판매
약 25~30 만대 판매 추정. 150 억원~200 억원 반영 예상. 담배 점유율 0.5%p 상승

수출담배는 주력시장 선적 지연 이슈로 수량 대폭 감소. 신시장 비중 확대 및
환율 영향으로 ASP는 하락

매출 부진 및 판관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 33.3% 감소

홍삼 부문

홍삼 매출액 15.1% 증가 국내는 12.9%, 수출은 47.9% 증가

홍삼 매출은 국내는 전년대비 12% 증가
로드샵 3% 증가 법인 12% 증가, 홈쇼핑 27% 증가
해외는 홍콩 및 미국 법인 매출 호조

매출 증가등의 이유로 16% 증가 순이익은 외환관련 손실 감소
영업이익 16% 증가 순이익 18% 증가

Q&A

Q 팻과 릴 디바이스 매출과 점유율 동향은?

디바이스 매출 1,2,3 월 모두 증가추세에 있음. 3 월 당월만 보더라도 11 만대 정도
판매. 디바이스는 서울의 경우 모든 CVS에서 커버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6 대
광역시에서만 커버 중
서울권에서는 경쟁사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고, 지방권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더라도 경쟁사보다 커버리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4 월 기준
판매수량은 앞지르는 것으로 추정

상대적인 점유율로 보면 점진적으로 확대 중. 적어도 올해 연말에 전체 시장의
30%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에는 5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나갈 계획
경쟁력이 있는 스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

Q 선적 지역 이슈 해결여부, 연간 수출 성장을 및 전망은?

4월 1주차부터 선적 재개. 1분기 미선적 부분은 2분기~3분기 초까지는 선적 완료 계획. 기재고 부분을 활용해서 현지 판매했기 때문에 현지판매 관련 변동사항은 없음 다만, 선적 관련 국내 수출 방면에서 불리한 부분은 다소 존재. 올해 실적 전망은 3년 동안 중동지역의 성장이 제한되어 있었고 신시장(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두 자릿 수 이상 성장 기조 유지

Q 최근의 이란이 미국과 있는 이슈사태가 과거에도 매출에 영향끼친 전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향후 매출에도 영향 미칠지

이란 향 매출에는 별 다른 변동 사항 없음. 계약 재개 및 가격의 큰 변동 없었음

Q 부동산 1분기 매출 감소하고 있는데 일시적 이슈인지?

대구 분양 매출 차이 때문. 수원 매출액 18년부터 공정진행에 따라 반영

Q 수량 대비 판매가격이 좋았던 이유

전자담배 기계판매 인식+전자담배 ASP 반영+ 고가담배 ASP 반영

Q 인삼실적이 좋았는데 수출이 좋았음 호조의 원동력

인삼쪽에서의 글로벌 성과 1/4분기 좋은데 그동안 현지에 적합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작년 4분기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중화권 시장에서 부진했던 뿌리심 부분이 실매출액 자체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대만하고 미국 같은 경우 제품 시장이 상당한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사업 구조 개선한게 이런 추세는 금년안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 국내담배에서 시장이 10프로 감소하고 매출액 5프로밖에 감소안함 단가 상승 요인

국내담배 총수요 감소 주로 자연감소율에다가 전자담배 시장으로 수요가 이전을 하면서 감소한 실적 매출액의 경우 약간 덜한거 1분기 2월부터 고가 담배를 확대 전국단위로 상대적으로 판매량 대비해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음

Q 전자담배 성장성에 변화 있는지?

런칭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한건 사실 이전의 속도보다 완만하게 성장은 사실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시장의 비중도 추정과 비슷함. 연간 20억개비 캐파 가능

Q 영업외 손익 특이사항

영업외에서 외환 관련해서 800억원 개선 작년 1분기 전기말 대비 원화 급격히 절상 환산순실 많이 발생했었고 올해 외환 822억원 개선이 있고 2013년도 세무조사 추징된거 소송을 제기했고 142억원 환입이 되었음 대구 분양 중도금 이자 대위변제 34억원 환입

Q 전자담배 전국 확대 시점은?

현재 커버리지는 서울 권역 전체 경기 일부 6대 광역시 5월 3주차 47개 시까지 확대를 하고 전국 커버리지는 4Q 초반에 CVS 전국을 갈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단 이유는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전자회사가 아니어서 디바이스에 대한 좀더 안정적인 수급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들 짚어야하고 전자 담배에 대한 역량 충분이 갖춰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4분기 이후 전국 커버리지 가져가면 10개월 정도의 경험치를 쌓아서 훨씬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

Q 인건비 증가 원인과 판관비 향후 영향은

인건비 1분기 일시적 요인으로 반영된 요인이 있음 명예퇴직 시행했음 일회성 60억원 정도 효과고 연간으로 봤을때 작년에 임금협상이 2분기에 타결된거 같은데 보통 3분기에 타결이 됨 타결 시점에 소급해서 인식을 하고 연간 인건비는 빠르면 2분기 3~4분기 반영이 될 것

Q 배당 정책 변화 요인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배당 고배당성향은 지속 유지할 것
적정한 배당 성향 고려해서 3 분기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